

국제자유도시와 시민의식

박 태 수*

〈 목 차 〉

1. 새로운 사회와 다원주의 가치의식	(1) 사람마다 의식수준이 다르다
2. 미래의 국제자유도시	(2) 시민의식
(1) 국제자유도시란 ?	4. 시민의식의 계발 방안
(2)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개발	5. 마무리
(3)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참고 문헌
3. 의식과 시민의식	Abstract

1. 새로운 사회와 다원주의 가치의식

21세기는 지식사회에서 정보사회로 탈바꿈하는 시기로서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해진다. 정보기술은 인류에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던져주었고, 인류는 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 인프라를 이용해 빛의 속도로 일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옆에 있는 동료나 뉴욕에 있는 동료나 똑같은 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같은 주제로 동시에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변화될 모습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는 어떠한 가치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최소한 선악에 대한 판단, 미추에 대한 인식이 일치되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같이 할 때 사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관된 가치야말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근원이며, 사회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며, 수평적 인간관계를 보편화하고, 다양성을 중시하게 된다.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이 커지고 생활양식과 의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가치관의 다원화도 불가피해 진다.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다원화될 때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치다원주의 의식이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 못지 않게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려면 자신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 관용성은 타인의 가치관이나 의견이 자신의 것과 다를 경우에도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다원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삶의 의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관광산업과 투자, 금융, 비즈니스 및 무역분야에서 자유경제 기능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제주인의 삶의 질을 높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다원화사회에서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서로를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삶을 말한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려면 제주도민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길러져야 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의식층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의 1층 수준에 불과하여 기껏해야 정원이나 거리의 사람들을 볼 정도의 짧은 조망거리를 갖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3층이나 5층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어서 보다 넓은 공간과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조망거리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예수나 석가 같은 분들은 의식이 매우 높아 조망거리를 초월해 있다.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천박하여 함께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를테면 남에게 욕을 하거나 침을 뱉고, 휴지를 아무데나 버려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있는지를 모르고 행동한다. 그러나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고귀하여 함께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한다. 사람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의식을 높혀 보다 고귀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국제자유도시는 바로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다원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제주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면 무엇보다 자신과 타인들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다가올 국제자유도시는 어떤 모습이며, 이러한 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은 어떤 의식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미래의 국제자유도시

(1) 국제자유도시란 ?

국제자유도시란 싱가포르, 홍콩, 암스테르담과 같이 관광, 교통, 통신, 무역, 금융의 중심도시(Hub City)로서 일정한 국제경제활동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도시이다. 또한 관세 및 조세를 크게 경감해 줌으로써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특별경제구역이다. 이러한 국제자유都市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희연, 2000).

첫째는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이다. 개발도상국의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 Zone : EPZ)이나 외국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자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공업단지를 설치한다. 투자자유지역 내에서는 수출용 원자재는 무관세로 무제한 수입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보통 3~10년 동안 면제 또는 감면된다. 수출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송금, 외국인고용, 자본재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면제한다. 타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도로망, 통신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한다. 우리나라의 마산수출자유지역, 멕시코의 마길라도라, 대만의 新竹科學工業園區, 일본의 테크노폴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국제교역중심형 교역자유지역'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FTZ), 자유권(Free Port), 통과지대(Transit Zone), 중계무역지역(Entrepot)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지역은 지역 내에 수입량의 제약, 관세, 물품세, 외환통제, 기타 각종 규제들이 면제되는 지역이다. 반입된 물품은 저장, 분류, 전시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지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전혀 없고 단시간 내에 하역·저장된다. 또한 쿼터제한이나 보세 가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풍부한 창고시설을 가지고 화물의 집산 및 중앙시장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는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로 국제금융업무를 유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제금융업무 중심형 자유지역'이다. 각국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Agency), 해외지점(Branch) 또는 자은행(Subsidiary Bank)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본국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바하마, 바레인,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등 20여개의 역외금융센터가 있다.

넷째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앞의 세 가지 유형인 생산중심형, 국제교역중심형, 국제금융업무 중심형의 자유지역 기능을 모두 부여한 다기능 자유도시이다. 즉 투자, 교역, 역외금융, 관광, 물류, 비즈니스 오피스 센터 등에 관해 개방과 규제철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완전 선진형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설치된 특수 '국제자유도시'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모든 수입관세가 철폐된 가운데 자유무역이 실시되고, 외환의 완전자유화를 통해 자유로운 국제금융활동이 보장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제공항, 국제항, 국제비즈니스 센터 등을 완비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다각적인 국제 비즈니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이 여기에 속하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도시규모가 제주도 면적의 약 1/3에 지나지 못하여 항만, 항공 등 SOC시설과 가공공장, 창고, 사무실 등의 시설확장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이 동북아시아지역으로 이동 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홍콩도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1국 2체제가 점차 붕괴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5~6년 후에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상실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홍콩 역시 싱가포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본토와 완전 격리되지 않고 가깝게 인접해 있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리적 단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2)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개발

제주도는 지정학적, 자연적, 경제적 면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와 격리되어 있어 '국제자유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미국지역을 잇는 기간항로에 접근해 있을 뿐 아니라 인구 약 20억의 배후지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몽골)을 확보하고 있어 해상 및 항공물류와 여객의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주요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영종도 국제공항과 상해 국제공항은 항공으로 30분 거리, 북경, 홍콩 및 도쿄간은 항공으로 각각 10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동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들의 지역본부가 위치하는데 최적지이다. 특히 중국에 투자한 수많은 외국 기업인들의 배후도시와 휴양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요충지이다.

제주도는 자연적으로 관광, 휴식, 유락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지역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경쟁도시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유리한 구비조건을 갖춘 제주도가 2010년 이후 무역, 물류, 정보, 금융, 비즈니스, 관광, 유락 등 복합적 하이테크 문화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복합형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될 경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 송희연(2000)의 구상을 요약하고자 한다.

1)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본조치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한국 등 7개국의 통화를 공용하도록 조치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부시장은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외국인으로 한다. 또한 초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공무원의 상당부분을 계약직 외국인으로 충당한다.

모든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하여, 완벽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익금송금, 외국인 고용, 자본재 도입 등에 관한 규제를 완전 면제하고 하이테크 문화도시에 걸맞는 도로, 최신통신, 항공, 항만, 전기, 수도 등 모든 SOC시설을 충분히 제공한다. 양질의 저렴한 부지를 제공하며, 쾌적한 하이테크 문화주택과 최상급의 외국인 학교도 건립한다.

2) 역외금융센터화

금융업이야말로 21세기 하이테크 문화시대의 중요한 산업이다. 제주도는 아시아 3대 국제금융센터인 동경, 홍콩, 싱가포르와 근접시간대에 놓여 있으므로 시차면에서 동일자 거래가 가능하다. 제주도에 복합형 국제자유도시가 설치될 경우 앞으로 확대될 파생수요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제2금융기관이 제한 없이 자유스럽게 진출하도록 한다.

3) 국제물류 및 교역 중심지로 육성

21세기는 물류의 시대라고도 하며 물류는 제3의 섹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원이라고 한다. 첨단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류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제주도는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인 일본의 고베, 대만의 카오슝, 중국의 홍콩과 상해, 천진, 청도, 대련 그리고 러시아의 나호도카에 둘러싸여 있는 중심지이다. 따라서 항공, 항만, 창고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중계무역, 화물의 집산지 및 중앙시장의 역할을 확보한다면 제주도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될 것이다.

4) 국제업무 센터화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하여 하이테크 문화시대에 부응한 국제업무센터로 발전한다. WTO, APEC, ASEM 등 국제기구의 산하조직과 회계, 법률, 광고,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전문산업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한다. 이를 위해 하이테크 문화시대의 각종 인프라와

트라이포트(Triport : Seaport, Airport, Teleport) 및 정보관련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명실상부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무역정보 관련 서비스, 국제회의, 국제전시 및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뉴욕, 런던, 파리의 근대 편의 시설과 유사한 각종 시설과 제도 도입은 물론 다가올 21세기 하이테크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설과 제도의 도입을 함께 구상·실천하게 될 것이다.

5) 국제관광, 휴양지 및 주택지의 개발

제주도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거대 경제권의 고소득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다. 제주도를 “신비의 섬, 환상의 섬”으로 개발하여 관광 서비스업을 하이테크 문화시대에 걸맞게 발전시킬 것이다. 특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넓은 구릉지)과 풍부한 농수산 특산물 생산은 자연관광에 아주 적합하다. 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등과 같은 과일농장 관광은 많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것이다. 골프, 수렵, 낚시, 등산을 위한 자연환경조건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특이한 ‘하이테크 섬문화’ 관광지로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라스베가스 “쇼”와 디즈니랜드를 직접 유치하여 제주도 분점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레저 및 휴양지로 개발하고 카지노 시설을 확충한다. 대규모의 다양한 국제쇼핑관광 시설을 마련하고 세계 모든 유명브랜드를 유치한다면 홍콩보다 못지 않은 국제쇼핑관광지가 될 것이다.

(3)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이처럼 모든 면에서 다원화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여건인 외국어 사용능력, 고급인력 확보, 선진 의식, 친절 및 서비스정신 등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제주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뎢뎢하고, 인사가 부족하며, 타지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배타적인 그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질서 의식은 매우 낮다. 길거리에 담배꽂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인사말은 어딘지 투명스럽고 정이 붙지 않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 않고 회전하거나 가는 도중 갑자기 서서 다른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전문인력도 육지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에서 특별행사를 할 때도 그 분야에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타지역의 전문인력을 초빙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외국어 등 언어 능력과 봉사정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과 제주도의 여건은 그들이 자라온 세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주도 발전의 학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 반사회적인 행위들, 즉 마약, 밀수, 국제범죄 등 범죄행위와 매춘·에이즈 등 성병, 도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송희연, 2000).

마약의 경우 한국은 가장 대처를 잘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1997년도 통계에 의하면 마약 사용자가 무직(34.9%)에 이어 농업종사자(12.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제주의 경우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밀수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수출입 자유화 확대 등으로 상당히 줄고 있으나, 농수산물 특히 참깨, 어류 등 대 중국 해상밀수가 무관세지역으로 완전 정착되기 전까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박의 경우는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현재와 같이 금지하여 건전한 풍토조성으로 고급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춘의 경우는 러시아, 중국 등에서 매춘녀의 유입이 예상되는 바 배후세력의 차단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매춘 금지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생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며, 위험지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것이다. 에이즈 등 성병의 경우 70%이상이 성욕이 활발한 20-40대이며 10대도 증가추세에 있어 치료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의 의식이 작용하는 것인 만큼, 의식을 높혀 줌으로써 새로운 변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의식과 시민의식

(1) 사람마다 의식수준이 다르다

인간은 '나', 자아라는 존재를 의식한다. '나'라는 존재에 관한 의식이 있기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된다. 동물에게는 밖을 보고 위협을 알아차리는 대외의식은 있어도 외부와 별개로 구분되는 '나'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자아의식은 없으며, 그것은 인간에게만 있다(정범모, 1997)

갓난아이의 의식세계는 '나'와 세계의 구분이 없다. 내가 세계이고, 세계가 나이다. '나'는 '나'라기 보다 엄마가 불러주는 이름이 곧 나인 셈이다. 그러면서 차츰 세계와 나를 구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아의식이 싹튼다. 그리고 나의 행동여하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내가 던진 그릇이 깨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의 소행임을 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의식은 대체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소유로 하고 싶어한다.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받는 일에만 즐거움을 느낀다. 결국 이기

적인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는 개체의식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다 필요하다. 개체의식은 자아의식을 말하며, 공동체의식은 시민의식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의식에 대한 자각정도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자각의 정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비슷한 조건을 맞이하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졸음이 올 경우 어떤 사람은 졸음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음을 의식하고 잠시 휴식을 취함으로써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의 경험이 그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준다. 이것은 그 순간을 어떤 의식으로 맞이했느냐에 달려 있다.

한 순간을 의식하는 데는 세 수준이 있다. 첫 번째 수준은 어떤 것을 행하고 나서 자각한다. 이 수준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나서 후회하기 때문에 늘 후회하면서 살아간다. 두 번째 수준은 어떤 것을 행하는 순간 자각한다. 이 수준은 행하는 순간에 깨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나 붓다처럼 행위자체가 늘 깨어있어서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일정한 수준의 의식을 갖고 태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은 개인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평생동안 거의 같은 수준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D. Hawkins) 박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20룩스의 에너지 수준으로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열등감에 잡혀 살아간다. 에너지 수준이 200인 '용기'에 이르면 내면의 참된 잠재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은 인생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분하여 주는 분기점이다. 사람은 이 수준에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한다. 이 수준에 이르면 인생이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되며, 비로소 생산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에너지 수준이 500인 '사랑'의 수준은 조건 없고 변함없으며 영원한 사랑에의 눈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사랑이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내부에서 그 근원을 찾기에 이 수준에서의 사랑은 오르내림의 파동을 보이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 자체가 된다. 사랑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그것을 녹여 버린다. 그리고 예수나 붓다는 1000룩스의 에너지 수준으로서 인류를 위해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간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개체의식'과 내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아는 '공동체의식'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자각의 수준을 높혀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것이 의식을 높히는 길이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보면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들여다보듯이 더욱 정확

해짐을 안다. 올바른 판단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펴본다면 더욱 정확해진다. 마음의 상태는 크고 높은 곳을 발판으로 삼아야 하며, 그러면 우리의 습관적 생활의 잘못도 똑똑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보다는 쉽고 편안한 일을 택하고 싶어하며 가난한 생활보다는 풍족한 생활을 추구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습성이 몸에 익숙해지면 사물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멀고, 나중에는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2) 시민의식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될 미래사회는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관광이나 금융, 교육, 휴양지 등 자유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부정적 측면의 현상들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다원화 사회에서는 '나'라는 개체의식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주제에서는 공동체의식인 1) 시민의 친절, 예의, 질서, 청결, 2) 시민의 자원봉사, 3) 세계화와 외국어 교육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민의 친절, 예의, 질서, 청결

여기서는 두 가지 일화를 예로 들어 시민의 친절이나 예의, 질서와 청결 의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조선일보의 "글로벌 에티켓"에서 읽은 이야기다. 영국 런던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막 떠나려 할 때였다. 7-8세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 어린이가 헐레벌떡 뛰어왔고, 떠나려던 버스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급히 달려온 소녀가 숨이찬 목소리로 버스 기사에게 "할머니가 오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저만치서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듯 뒤통거렸고 두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운전기사는 내려서 할머니에게로 갔다.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 할머니 짐을 받아들면서 "힘드실텐데 조심해서 타세요"라며 할머니의 짐을 버스에 실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발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어느 열차 승객이 다니는 열차를 타고 싶지 않다는 글이다. 이 글에 의하면, 글쓴이는 가을여행을 위해 부안행 열차를 타고 갔다가 열차 안에서 디스코 메들리의 뽕짝음으로 인해 난장판이 된 모습을 몇 시간동안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열차에서 관광버스로 옮겨 탔지만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술취한 승객끼리 한바탕 싸움까지 일어나 그 날의 여행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했다.

우리는 위의 두 사례에서 영국인과 한국인의 시민의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여유있고 친절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운전기사나 승객들이 감각적인 쾌락에 만취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법도 질서도 없는 모습을 흔히 본다. 버스, 공원 어디서나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먹던 음식을 버리는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어 세계인들과 함께하며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하고서는 결코 삶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2) 시민의 자원봉사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에 의해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거짓 없이 타인을 살피고 서로 협조하는 인간관계를 가질 것이다.

봉사의 정신은 자발성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특징지어진다. 자발성이란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저항을 극복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자발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대하고 어떠한 밑바닥 일이나 사람을 대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사회의 선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사랑은 조건 없고 변함이 없으며, 표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이처럼 봉사는 동기의 순수성과 그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죽어 가는 문둥병자를 안아 올리기 위해 몸을 굽힐 때 거기에서 “고난에 찬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의 모습”을 본다. 그녀는 죽어 가는 문둥병자를 돕고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던지 간에 그들에게서 완벽함과 아름다움의 전 우주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움을 준다는 것은 경외감, 예찬, 감사의 행위여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1988년 월드컵이 끝난 뒤 이 행사 성공의 80%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라고 했다. 월드컵 기간 중 안내, 통역, 운전, 질서, 회계, 전산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약했다. 이들은 식사나 교통비를 제외하곤 일체의 급료를 받지 않았지만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봉사함으로써 프랑스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 주변에는 자원봉사의 인력이 필요한 곳이 무수히 많다. 관광지나 터미널, 시장 등에서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에서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의 노약자 안내와 시설관리, 병원이나 사회수용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물론 아시안게임, 월드컵, 올림픽 같은 각종 국제행사에서도 자원봉사는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02년의 월드컵 행사와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하여 제주인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막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그들 자신의 삶의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3) 세계화와 외국어 교육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는 경제·정치·문화·지리적으로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복잡하고 밀접하게 얽혀져가고 있다. 지구 어느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중요한 결정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외국어 사용은 필수적이며, 특히 영어는 세계의 유일한 보편적 언어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는 국적이나 민족을 초월한 인류 의사소통 공통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는 '지구촌'이라는 큰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존 번영을 꾀해야 할 것이므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날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은 영어 공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국어를 소홀히 하거나 모국어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어로 세계의 모든 문화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어정보화 계획으로 "21세기 세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되지 않는 언어는 바로 정보지식사회에서 쓸모가 없게 되며, 선진국들의 정보화에만 의존하면 그 결과가 곧 우리말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비하여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의 제2언어로 영어를 공식화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영어를 강화하며, 공식언어로서 영어를 정부관련 기록문서나 서신, 공공문서 및 홍보물에 한국어와 함께 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와 관광에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구사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는 지구촌이라는 공동체에서 외국어를 우리말 못지 않게 사용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4. 시민의식의 제발 방안

지금까지 새로운 사회와 다원주의 가치의식, 미래의 국제자유도시, 의식과 시민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떠한 건물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가듯이 우리 인간도 그 주인인 의식이 깨어있어야 참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국제자유도시에 따른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 있는 소수계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비주류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미국사회의 주류라는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제주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눈치나 보고 주눅들어 사는 도민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주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가 개발되어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도민들의 의식도 국제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의식은 훈련으로 계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더불어 국제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계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원주의적 변화에 적용할 수 있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진실해야 한다. 비록 다원화 사회에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가치가 필요할지라도 진실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하다. 참다운 사람은 진실한 것에 노력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취미에 맞고 손쉽고 편안한 것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진실한 것은 비록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진실해질 수 있다. 진실해지려면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느낌과 의도를 남에게 숨기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부정직할 때, 우리는 자기의 드러내기 싫은 행동이나 생각, 느낌, 의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게 된다.

세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식 수준을 높힐 수 있다.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겸손해져서 다 안다는 자만심을 버리게 된다. 이 때 앎의 성숙이 시작된다. 겸허한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비웃는 능력이 생기며,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다워질 수 있다 (Hawkins, 이종수 역, 2000). 우리가 곧 마음 자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 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바라보는 마음이 나의 주인인 의식이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음식이 들어왔다. 먹어보니 맛이 있다. 조금만 먹어야지 하면서 결국 다 먹는다. 미각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는다. 먹고 나서는 너무 많이 먹었다고 후회한다. 이것은 나의 주인인 의식이 미감이라는 감각에 패배한 것이다.

넷째, 사람마다 의식수준이 다름을 알고 의식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식의 한 예로, 고통과 긴장의 분위기가 있는 똑같은 감방에서 수감자들은 그들의 '관점'에 따라 현저한 반응의 차이를 보인다. 가장 낮은 의식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자살을 기도한다. 어떤 이들은 정신병자가 되거나 죄의식에 찬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담에 차서 말도 안하고 먹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슬픔의 눈물을 감추려고 한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곧잘 피해망상이나 아침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같은 감방인데도 어떤 수감자들은 폭력과 공격, 또는 분노의 에너지를 보인다.

반면, 어떤 수감자들은 그들이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 용기를 발휘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독서에 열중한다. 소수의 수감자들은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주위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들 중 몇몇은 높은 에

너지 장을 가지고 깊은 영적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완전한 깨달음의 길을 밟아가기도 한다.

다섯째, 정합된 삶이 되도록 할 때 책임감이 높아진다. 우리가 어떤 일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일에 주의를 집중하게 될 때를 정합(整合)이라고 하고, 그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주의가 산만하여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를 부정합(不整合)이라고 한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는 그것을 향해 뻗어나간다.

만일 우리의 삶이 중요성을 부여한 것에 주의가 가있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에 주의가 머무르고 있다면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것을 '주의 고갈'이라고 한다. 주의가 고갈되면 자신의 무능력을 타하게 되거나 하는 일에 피를 부리거나 스스로 합리화하며 저항하게 된다. 때로는 화를 내고 초조해 하며 남을 타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주의가 정합될 때는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생기며, 자기만족감으로 인해 행복해진다.

여섯째, 우리는 자각할 수 있을 때마다 자각해야 한다. 화가 났다. 처음에는 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차분해진다. 다음 번엔 1시간 후에, 그 다음 번엔 몇 분 후면 차분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엔 그것이 일어날 때 바로 차분해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점차로 진보하여 어느 날 화가 나는 동시에 잘못을 범하는 현행법을 잡게 된다.

입재감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깨어있음으로써 타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한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를 온전히 상대방에게 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황에 적절한지를 감지하여 자신의 행위를 교정한다. 필자는 대화를 하거나 강의 도중 목소리가 높거나 빠르다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제 목소리가 좀 빠르지요?"라든가 "제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군요"라고 말하면서 원래의 페이스로 돌아간다.

5. 마 무 리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앞두고 제주도민들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보다 밝은 제주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은 바로 의식을 높히는 일이다. 의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너지로서 작용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가? 물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다가올 세계에서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꽃이 피는 것은 그 이전에 꽃을 피우게 할 잠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자는 의식을 깨워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투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은 바로 나의 반영이다. 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의식이다.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 우리의 의식이 높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은 5년 또는 10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되고 있다. 아마도 이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그 결과가 반영될 연령의 도민들은 지금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들에게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비하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당위성, 국제시민으로서의 매너, 제주도민의 정체성,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다른 국제자유도시 시민들의 삶의 모습 등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의식계발의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해석 옮김(2000). 붓 다, 해누리

송희연(2000). “새천년 한국의 세계화와 제주도의 역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지원위원회, 제주도」

이종수 옮김(2000). 의식혁명, (주) 한문화 멀티미디어

정범모(1997). 인간의 자아실현, 나남신서

Harry Palmer(1994). Resurfacing, 문진희 외 역(2000), 정신세계사

<abstrac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ith Civil Awareness

Park, Tae-Soo

In the 21st Century, time of transforming from knowledge society into information society, th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s made much faster and more extensively than any other time in the history. This is the society where we're going to live in the future. As the ones who are going to live in the future society like this, what values should we have? As the autonomy of individuals and groups will be enhanced and lifestyles and consciousness will be varied, the diversity of values is inevitable in this new society. When the values are getting diverse in society, each individual is required to have the awareness of pluralism in values.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a purpos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fe of Jeju natives by creating the synergy of the function of free economy in the fields of the tourist industry, investigation, finance, business and trade.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means both respecting each other's values with an open-minded attitude in the plural society of living together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living a mentally stable life in harmony with the mind of willingly helping each other. To pursue such life, Jeju natives should not only have a correct recogni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but also grow a high civil awareness of changing Jeju into the island of peace.

The ways of increasing the civil consciousness for the Free International City are as follows:

First, they should have an ownership as Jeju natives.

Second, they should be able to adapt to pluralistic changes and should be honest in what they do.

Third, even only by observing their mind they could increase the level of their consciousness.

Fourth, they should try to extend their consciousness, recognizing that each person has a different level of consciousness.

Fifth, they could increase their responsibility by living an aligned life.